

'손씻기는 셀프백신' 가장 쉽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법

손씻기 문화 정착 위해 민관 협동 캠페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올바른 손씻기를 강조하며,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해 손씻기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손만 잘 씻어도 세균성인질, 장티푸스 등 설사질환을 약 30% 줄일 수 있고, 감기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발생률을 약 20% 줄일 수 있다. 특히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의 경우 설사질환을 약 60%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손씻기 6단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도 손씻기를 '셀프백신'(do-it-yourself vaccine)'이라고 할 만큼 가장 쉽고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러한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손씻기 문화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손씻기 캠페인을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요리 및 식사 전 손씻기의 생활화를 위해 jtb '한가롭소'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손씻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커피전문점의 화장실, 계산대, 공용물품 보관대 등에서 올바른 손씻기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손씻기 습관형성을 위해 올해 초 전국 초등학교에 손씻기 포스터 및 스티커를 배포한 데 이어 장난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키즈카페에

서도 '놀이 후에 손씻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PC방과도 협력해 키보드, 마우스 등 공용물품 이용 후 손씻기가 이뤄지도록 모니터 화면에 안내문구를 전하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손씻기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전국 옥외 대형 전광판을 통해 손씻기 독려 메시지를 송출했다.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 버스정류장의 버스정보시스템(BIS)을 통한 '손잡이 이용 후 손씻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포스터, 영상 등 손씻기 국민소통 콘텐츠의 원본과 파일을 홈페이지(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그동안 걸렸던 많은 감염병은 우리의 두 손을 통해 발생했다"며 "손씻기 문화 정착을 위해 향후 다양한 산업군 및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심장 관상동맥우회술 1등급 기관 64곳

우수기관 전국 권역 고루 분포

심장 관상동맥우회술을 잘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5차 적정성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진료량=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 △진료과정=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진료결과=수술 후 합병증(출혈·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일수이다.

평가결과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64곳으로 4차 평가에 비해 7개 기관이 증가했으며,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서울권 20곳, 경기권 19곳, 경상권 14곳, 전라권 5곳, 충청권 3곳, 강원권 2곳, 제주권 1곳 순이다.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3630건으로 4차 평가 대비 3.6%(125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상동맥우회술 환자의 생존을 돕고 재발을 줄일 수 있어 권장되고 있는 내흉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9.6%로 4차 평가보다 0.9%p 증가했다.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

률도 99.4%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2.4%로 4차 평가 대비 0.7%p, 수술 후 30일내 사망률은 3.1%로 0.5%p 감소했다. 수술 후 입원일수는 14.0일로 조사됐다.

이번 평가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는 남성이 76.1%로 여성(23.9%)보다 약 3.2배 많았다. 2.7배 높았던 지난 평가에 비해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환자 중 60대 이상이 74.1%를 차지했고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60대부터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백인기 심평원 평가관리실장은 "우수기관이 증가하고 진료결과 지표 값이 향상된 것은 요양기관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며, 하반기에는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장질환은 안에 이어 2017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이며,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 46.2%는 허혈성 심질환이 원인이었다.

심평원은 2011년부터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주혜진 기자 hjoo@

신간

'아프리카, 당신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있다'

김소영 간호사 지음

'당신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있고,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한정된 삶 속에서 여유를 즐기며 우리라는 친밀감과 일체감으로 살아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야기다. 김소영 간호사가 아프리카 탐자니아와 남아공 여행을 담은 책 '아프리카, 당신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있다'를 펴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시작해 40여개 국가를 여행한 김소영 간호사가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로 떠났다. 호주, 쿠바의 여행을 책으로 펴낸 데 이어 아프리카 여행기도 출간하게 됐다.

이번 책에는 여행기와 함께 현지 언어와 날씨, 교통 등 여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수록돼 있다. 탐자니아와 남아공 현지의 모습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진도 실려 있어 흥미를 더한다.

김소영 간호사는 책을 소개하며 "약간의 두려운 마음으로 간 여행이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여행보다 행복했다"고 말한다. 특히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라는 탐자니아의 우지마 정신, '당신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남아공의 우분투 정신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전한다.

그는 이번 여행을 통해 "윙글윙글한 비포장도로를 지나 세렝게티와 응고로고로에 펼쳐진 동물의 천국을 지나면서부터는 '허쿠나 마타타(No problem)'를 느꼈다"면서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버린다"고 말한다.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친밀감으로 가슴이 웅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전한다.

김소영 간호사는 대학원에서 25년간 근무했다. 호주에서의 생활기를 담은 '오지랴 아줌마의 호주생활 누리기'와 쿠바 여행을 담은 '쿠바, 삶의 여유를 배우다'를 펴낸 바 있다.

(맑은샘 / 352쪽 / 15,000원)



최유주 기자 yjchoi@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추진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며, 5세(60개월)까지 적용을 받는다. 기존에는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됐었다.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토록 명시했다. 3인실은 30%, 2인실은 40%이다. 다만 불필요한 출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

제 적용은 제외한다.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위한 서류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진료비를 입원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질병군 입원비 산정방법을 개선한다. 고정비를 대신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를 반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속한 체납처분, 산업재해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확대하고,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처분 수위를 줄여줄 때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액수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 사용하

고 있는 '보장구' 용어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변경한다.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전 양식을 의지·보조기, 전동보조기기, 보청기, 시각장애용보조기기 등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시각장애용 보조기기의 인지도가 급여기준액을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시각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급여를 확대한다. 돌보미·망원경 급여 지급 신청 시 검수 확인서 제출 생략 등 기타 급여 절차도 개선했다.

건강보험 관련 신고사무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내용 기입 신고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 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주혜진 기자 hjoo@

병원 입원할 때 신분증 확인 의무화

9월 1일부터 시행 ...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9월 1일부터 병원에 입원할 때 신분증 제출이 의무화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는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없이 단순자력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진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

등록번호를 위외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900만원의 부당진료비가 지출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대어·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면서 "국민들께 입원진료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실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진숙 기자 jslee@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추석 연휴관계로 9월 12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립 인 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특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상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02) 525-7318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09-6348	보건간호사회 (02) 2296-7677	(02) 527-3360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보건의료사회 (010-2061-6471)	(02) 2263-1959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마취간호사회 (02) 716-9030	(02) 2267-5688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052) 230-0735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82-6006	노인간호사회 (052) 230-0735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90		
강원도 (033) 263-6417			



간호학 전문 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